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 드립니다]

## [디앤씨미디어(263720), 2018년 2분기 실적 발표]

**2018.2Q 연결기준 영업이익 17억 6천만 원... 전년비 30.1% ↑**

- ▶ 매출액 전년비 23.5% 상승... 웹소설·웹툰 지속 출시로 전자책 매출 증대되며 호실적 견인
- ▶ 검증된 웹툰 기반 글로벌 진출 가속화, 인기 IP기반 OSMU 사업 확대로 지속성장 목표

<2018-08-14> 디앤씨미디어가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웹소설·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대표 신현호)는 14일 공시를 통해 2018년 2분기 매출액 80억 1천만 원, 영업이익 17억 6천만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3.5%, 30.1% 상승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2%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지속 선보이고 있는 다수의 신규 웹소설·웹툰 콘텐츠가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신작 웹툰 5편을 선보이는 등 콘텐츠 라인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전자책 매출이 확대돼 호실적을 견인한 것”이라며 “웹툰의 경우 연재가 지속될수록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작 출시 및 연재에 따른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분기 전자책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그 중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5%에서 올 상반기 24%까지 늘어나 웹툰 라인업 확대가 실적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현재 디앤씨미디어 웹툰 작품 수는 14편으로, 올해 연말까지 20편의 웹툰 라인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검증된 웹툰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는 해외 매출이 본격 확대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가 이미 중국과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지난 4월 중국 콰이칸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했던 사정’은 7월 말 연재를 시작해 출시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2위로 올라서는 등 해외 진출 작품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현재 웹툰 라인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흥행성이 검증된 다수 작품의 해외 진출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바, IP 가치 향상을 통한 지속성장을 확신하고 있다”며 “자회사 디앤씨오브스튜디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퍼블리싱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게임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IP기반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참고자료]

<디앤씨미디어 2018년 2분기 실적>

1. 연결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2018.2Q	2018.1Q	전기대비	2017.2Q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8,011	7,521	6.5%	6,486	23.5%
영업이익	1,755	1,387	26.5%	1,349	30.1%
당기순이익	1,444	1,202	20.1%	1,108	30.2%

2. 별도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2018.2Q	2018.1Q	전기대비	2017.2Q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8,011	7,521	6.5%	6,486	23.5%
영업이익	1,871	1,492	25.4%	1,349	38.7%
당기순이익	1,554	1,307	18.9%	1,108	40.1%

<2018년 상반기(18.01.01~18.05.31) 신규 론칭 웹툰 라인업>

	작품명	연재 시기	진행 현황
1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2018.01	42화
2	악녀의 정의	2018.01	39화
3	나 혼자만 레벨업	2018.03	34화
4	웨딩 임파서블	2018.03	30화
5	귀환자의 마법은 특별해야 합니다	2018.05	27화

\* 진행 현황은 18.08.13(금) 기준

☐ 자료문의 : 디앤씨미디어 기획관리실 김현호 이사 (02-6124-6391)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윤지희 책임컨설턴트 (010-7139-5888)